





# 회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민족의 영광 만방에 빛내이자

평안남도, 라선시 군민경축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주어진 것을 축하하는 평안남도, 평양시 군민경축대회가 3일에 각각 전개되었다.

대회장들은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충청의 200일전투를 깊이 벌려나가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주어진 것을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민망에 떠나게 주체혁명위업을 물까지 완성해 나가면서 혁사적의의를 가지는 대성사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인민군장병들과 도입의 전제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 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 이 신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게 새로운 주체 100년대전군을 전투에서 승리적으로 이기고 조국혁명위업을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자 합니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태양민족의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호보위하며 일심단결의 위력,

전에 없는 성과가 이룩된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내부에 힘을 내고 적들이 강하게 대항해 대하여 강조하였다.

도입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당시의 영도업적으로 뜨겁게

짓들이 있는 경남땅의 인민들답게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중요업무부문에서 계속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농산, 축산, 수산부문과 지방용품공장

들에서

충청의 200일전투로 목표를 정하고 힘ῇ 끌어올리고 우리 당이 승리의 환길로 이끌어온 주체혁명위업을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자 합니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태양민족의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나같이 대하여 언급하였다.

액수는 당이 안겨준 혁

명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고도의 직통체계에서 해부의 혼란을

消除

하고 세워져 일으키며 적들이 강하게 우려 국가의 자존과 권위를 해치며 른다간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선제타격 대발로 만들고 새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을 빛나는 승리를 절속할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정년들이 당시의 사상판권, 당정책옹위전에서 기수가 되고 미리

최고

혁신의 속도로 흥미진하여 새로운 영웅년신화들을 끊임없이 창조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정책으로 선포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전략적고선들과 불멸의 지침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민이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통하여 확신있게 전진해나갈수 있게 한 위대한 업적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인민군장병들이 당종양이 정한 돌격침로를 따라 밖의 깔바탕에 끝을 달고 전속, 폭속으로 달려 사회주의 수호전의 결사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돌격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

김정은원수님의 육성직령도체계에 더욱 헌신하고 우리 당의 혁명사상만이 끝이 모신 크나큰 궁지

안고

충청의 20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충돌돌격전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혁명의 경계무역지대개발과 학생회를 달리 나가야 할것이라며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인민군장병들이 당종양이 정한 돌격침로를 따라 밖의 깔바탕에 끝을 달고 전속, 폭속으로 달려 사회주의 수호전의 결사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돌격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

김정은원수님의 육성직령도체계에 더욱 헌신하고 우리 당의 혁명사상만이 끝이 모신 크나큰 궁지

안고

충청의 20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충돌돌격전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혁명의 경계무역지대개발과 학생회를 달리 나가야 할것이라며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인민군장병들이 당종양이 정한 돌격침로를 따라 밖의 깔바탕에 끝을 달고 전속, 폭속으로 달려 사회주의 수호전의 결사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돌격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

김정은원수님의 육성직령도체계에 더욱 헌신하고 우리 당의 혁명사상만이 끝이 모신 크나큰 궁지

안고

충청의 20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충돌돌격전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혁명의 경계무역지대개발과 학생회를 달리 나가야 할것이라며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인민군장병들이 당종양이 정한 돌격침로를 따라 밖의 깔바탕에 끝을 달고 전속, 폭속으로 달려 사회주의 수호전의 결사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돌격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

김정은원수님의 육성직령도체계에 더욱 헌신하고 우리 당의 혁명사상만이 끝이 모신 크나큰 궁지

안고

충청의 20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충돌돌격전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혁명의 경계무역지대개발과 학생회를 달리 나가야 할것이라며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인민군장병들이 당종양이 정한 돌격침로를 따라 밖의 깔바탕에 끝을 달고 전속, 폭속으로 달려 사회주의 수호전의 결사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돌격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

김정은원수님의 육성직령도체계에 더욱 헌신하고 우리 당의 혁명사상만이 끝이 모신 크나큰 궁지

안고

충청의 20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충돌돌격전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혁명의 경계무역지대개발과 학생회를 달리 나가야 할것이라며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인민군장병들이 당종양이 정한 돌격침로를 따라 밖의 깔바탕에 끝을 달고 전속, 폭속으로 달려 사회주의 수호전의 결사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돌격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

김정은원수님의 육성직령도체계에 더욱 헌신하고 우리 당의 혁명사상만이 끝이 모신 크나큰 궁지

안고

충청의 20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충돌돌격전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혁명의 경계무역지대개발과 학생회를 달리 나가야 할것이라며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인민군장병들이 당종양이 정한 돌격침로를 따라 밖의 깔바탕에 끝을 달고 전속, 폭속으로 달려 사회주의 수호전의 결사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돌격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

김정은원수님의 육성직령도체계에 더욱 헌신하고 우리 당의 혁명사상만이 끝이 모신 크나큰 궁지

안고

충청의 20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충돌돌격전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혁명의 경계무역지대개발과 학생회를 달리 나가야 할것이라며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인민군장병들이 당종양이 정한 돌격침로를 따라 밖의 깔바탕에 끝을 달고 전속, 폭속으로 달려 사회주의 수호전의 결사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돌격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

김정은원수님의 육성직령도체계에 더욱 헌신하고 우리 당의 혁명사상만이 끝이 모신 크나큰 궁지

안고

충청의 20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충돌돌격전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혁명의 경계무역지대개발과 학생회를 달리 나가야 할것이라며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인민군장병들이 당종양이 정한 돌격침로를 따라 밖의 깔바탕에 끝을 달고 전속, 폭속으로 달려 사회주의 수호전의 결사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돌격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

김정은원수님의 육성직령도체계에 더욱 헌신하고 우리 당의 혁명사상만이 끝이 모신 크나큰 궁지

안고

충청의 20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충돌돌격전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혁명의 경계무역지대개발과 학생회를 달리 나가야 할것이라며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인민군장병들이 당종양이 정한 돌격침로를 따라 밖의 깔바탕에 끝을 달고 전속, 폭속으로 달려 사회주의 수호전의 결사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돌격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

김정은원수님의 육성직령도체계에 더욱 헌신하고 우리 당의 혁명사상만이 끝이 모신 크나큰 궁지

안고

충청의 20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충돌돌격전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혁명의 경계무역지대개발과 학생회를 달리 나가야 할것이라며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인민군장병들이 당종양이 정한 돌격침로를 따라 밖의 깔바탕에 끝을 달고 전속, 폭속으로 달려 사회주의 수호전의 결사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돌격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

김정은원수님의 육성직령도체계에 더욱 헌신하고 우리 당의 혁명사상만이 끝이 모신 크나큰 궁지

안고

충청의 20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충돌돌격전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혁명의 경계무역지대개발과 학생회를 달리 나가야 할것이라며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인민군장병들이 당종양이 정한 돌격침로를 따라 밖의 깔바탕에 끝을 달고 전속, 폭속으로 달려 사회주의 수호전의 결사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돌격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

김정은원수님의 육성직령도체계에 더욱 헌신하고 우리 당의 혁명사상만이 끝이 모신 크나큰 궁지

안고

충청의 20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충돌돌격전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혁명의 경계무역지대개발과 학생회를 달리 나가야 할것이라며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인민군장병들이 당종양이 정한 돌격침로를 따라 밖의 깔바탕에 끝을 달고 전속, 폭속으로 달려 사회주의 수호전의 결사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돌격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

김정은원수님의 육성직령도체계에 더욱 헌신하고 우리 당의 혁명사상만이 끝이 모신 크나큰 궁지

안고

충청의 20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충돌돌격전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혁명의 경계무역지대개발과 학생회를 달리 나가야 할것이라며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인민군장병들이 당종양이 정한 돌격침로를 따라 밖의 깔바탕에 끝을 달고 전속, 폭속으로 달려 사회주의 수호전의 결사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돌격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

김정은원수님의 육성직령도체계에 더욱 헌신하고 우리 당의 혁명사상만이 끝이 모신 크나큰 궁지

# 모두가 선군시대 공로자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 사연깊은 기관차 내연 602호는 오늘도 기적소리 높이 울린다

선군시대 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평양기관차대 책임소리

우리 당이 선군시대 공로자로 내세워준 로근한동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더나가신 사적기판차 내연 602호 책임기판사이다.

평양기판차대뿐아니라 철도에서도 활약하는 기관차로 손꼽히는 그는 공훈 26호기대공이다. 공기기관차들이 많은 철도 운수부문에는 로근한동무와 같은 공훈 26호기대공으로 받은 기판사가 쉽지 않다.

공훈 26호기대공기판사, 험지 않은 이 부류에 지난 3년동안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영광

학교를 졸업했는데 이렇게 사적기판차에서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떼게 된것이었다.

《우리 602호 승무조원들은 어느 기관차 승무조원들과는 달리, 말하자면 일리는 사적기대를 판리하고 빛내야 할 주인들이다.》

일리는 사적기대의 주인들, 리동훈책임기판사의 맘은 로근한동무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다.

하지만 시작하여서는 이는 보다 모르는것이 많았다. 저대한 디젤 기판이며 발전기, 전진동기와

우리 기관차는 어버이수령님의 명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사적기대가 아니니까. 또 우리는 영광의 사적기대를 담당한 주인들이구.》

그랬다. 전시승무점차원 출신 절도로병의 아들이어서 이런이 아니었다. 영광의 사적기판차에 깃든 불멸의 명도업적을 빛내여 가려는것이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내짚던 그때에 벌써 그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된 심정이었다.

이런 흥분한 꿈과 피상을 지닌 그는 기판차대에 배치 받은지 3년 후 사적기판차를 조작할 때 방랑폭포에 봄아가는 기판사가 되었다.

1990년 가을 로근한동무는 책임기판사로 임명받았다.

임명받은 그날 10년세월 수 없이 보고 배망하고 하여 이제는 눈을 감고서도 그 무엇에 책임을 끌어당길 수 있는 젊은 기관차였던 로근한동무는 자정년도도록 기관차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다. 무사고혁신자가 되라고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응성이 오늘도 울리는 듯 한 운정실이며 동음높은 디젤기판차 달린 기, 총통기와 압축기, 견인동기와 주행부분...

마음이 절로 무거워졌다. 아직은 이는 보다 모르는것, 배워야 할것이 많은데 그때 조록은 32살의 젊은 기관사인 자기에게 영광의 사적기대는 기관차를 밟아준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체취가 어떤 사연들은 주간체어기를 힘있게 끌어잡으며 로근한동무는 속다침했다.

〈내 행방 백두산철제위인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는 초명으로 살리라!〉

그는 불멸의 명도업적이다. 기관차의 기술관리를 더욱 앞설 있게 하여 능률을 향상 최상의 상황에서 밭위대를 목표로 내세웠다. 승무의 잠시간에도 정비시간에도 그는 기관차운용에 주의를 집중하고 기관차 및 철거기, 주행부분의 고장은 고장으로부터 기관차를 회복하는 데 대한 점검을 잣았던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부속품들을 수혈에 대한 점검을 잣았던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부속품을 수혈에 대한 점검을 잣았던 것이다.

그는 불멸의 명도업적이다. 기관차의 기술관리를 더욱 앞설 있게 하여 능률을 향상 최상의 상황에서 밭위대를 목표로 내세웠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안팎으로 풍미와 같은 내연 602호를 보는 사람마다 주인들의 깨끗한 일봉세를 두고 경탄을 금지 못하고 말았다.

그 때마다 그는 로근한동우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차운 열차를 직접수여받았고,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에 기관차는 또다시 2종 26호 모델기대에 상을 생활하였다.

#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과 마음도 보폭도 함께 하며

## 우리 마을에서 청년영웅이 나왔다

평원군 심원협동농장에서

우리 마을에서 청년영웅이 나왔다!

얼마전 청원군 실험협동농장 마을에 이런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10여년전 청춘시절을 살았던 이 빛내일 걸심을 풀고 백두산으로 떠났던 어제 날농장청년이 영웅이 되더니!

끔금은 회한 소식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백두대지에서 참조전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과 청년문화를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전사화적으로 힘있게 벌려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음도 모모도 물러보기 달랐겠을 어제 날농장을 청년, 앞 가슴에 영웅메달을 번쩍이며 마을 들어서 모습을 그려며 농장사람들은 떠나는 영웅을 맞이한 준비로 황성거렸다.

워너워너해도 농사일을 잘하는 지방으로 영웅을 멋냈이 및 이해하는 그들의 한결 같은 생각이었다.

백두산봉우리를 농사로 살지 어대위한 군장님께 기쁨을 드릴 한마음으로 축촌으로 진출해온 가정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금 당장은 우리 청년들을 대나간, 내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후방에서 어깨걸고 함께 나아갈 미더운 동진, 전우로 굽게 밟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순 해산청년역 구내에는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는 광경이 펼쳐졌다.

돌격대체부처팀의 꿈꿀한 청년들이 멀리에서 오르는데 그들의 앞가슴마다에는 푸른색 배달들이 및 나고 있었다.

금색왕선이 친란한 오각형에 살우에 오각별이 있고 통그리미 웃부분의 휘날리는 기발한 『영웅청년』이라는 글자들로 새겼으며 그 아래부분에 혁명의 성 산 백두산과 철전소전선, 충진당과 이만수술이 부각된 메달!

그것을 알아본 사람들은 활성화 했다.

『새로 세정전 백두산영웅청년 단조 전기』 멀리 놓은

가정을 평양집이라고 불렀다.

백두산봉우리는 그 부름을 따라 빙도를 채우는데서 자기 가정이 언제나 앞장에 서길 바라는 미용사들의 기대와 달리로 받아안았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혁명의 수도 평양을 가슴에 알고 농지일뿐 아니라 모든 일에서 앞장에 섰다.

그런 그가 오늘은 향일혁명선원들의 붐은 피가 스며있는 백두산에서 온 나라가 다 아는 영웅이 된 것이다.

몇해전 1월 어느날 농장에서 거울실에서 내기처럼 업그레이드되었는데 예전에 없는 추위로 어느때처럼 일자리가 죽죽 나지 않았다. 작업의 일정에 제4작업반장은 청원주동우를 한장의 편지를 들고 작업반원들을 앞에 놓았다가, 그것은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인 백두산봉우리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였다.

『어머니, 지금 이곳의 날씨는 평균 30°C를 오르내리고 있고 눈보라는 얼마나 사나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순간도 주저하지나 동요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혁명선원이

리지 말라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강도 일제와 싸운 무사들이 나를 지켜보는 것만 같습니다. …』

결음걸을 막아서는 모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백두대지에 만년언제를 쌓아가는 백두산봉우리의 모습이 어려와 농장원들은 가슴이 찌르게 되었다. 백두산봉우리의 편지가 불이 되어 작업방에 서는 그날 서릉을 내기에서 말 없는 경쟁이 벌어졌으며 어느때 없는 혁신의 불타비를 일었다.

백두산봉우리의 삶에 자기들의 하루하루를 비추어보는 것은 청원주동우를 비롯한 온 작업반원들의 생활로 되었다.

부탁되는 난판을 맞았거나 해치며 언제를 쌓고 물길을 한자리로 헤치거나는 돌격대원들은 억수로 퍼지는 북우속에서 충진해놓은 타일들에 비풀이 터풀려면서 자기들의 비웃을 벗어 있는 백두산봉우리들, 그로록 어려운 속에서도 자제의 희망기지며 양묘장도 치며놓고 살림을 꾸리고 부면산들을 푸르게 하여 애자들을…

그런 백두산봉우리 속에 백두산 봉우리 있다. 그것이 바로 혁명선원들의 모습도 감동적이었고 때

군요.』

『옳구만, 그걸 다니 모두 영웅지지 않소?』

사람들 속에서 떠발들이 우는 청년들은 허가길에 오른 백두산

과 홍분 또한 뜻다른것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설기념비』는 백두산영웅청년 1호, 2호발전소설기념비로 2931명의 일군들과 청년들

산기슭에서부터 조국땅 방방곡곡에 펼쳐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설기념비를 이루고 있다.

그들이 조국의 비단, 눈물의 비단으로 화하였다.

위훈의 주인공들이나 그

예 !

나에게는 그 하나하나의 메달들이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영웅조선의 기상을 망망에 펼친 백두산봉우리들이 암말로 나리의 귀중한 보배들이며 백두대지에 그들

를 뿐인 국의 괴와 팔을 품어 토록 헌신하는 우리 당의 불멸의 인증으로 안겨왔다. 우리 청년들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당중앙파 뜻과 헌장을 할

때 하는 경직정

을 때 우뚝대며 떠나면 날 배당하여 우리는 새롭게인이다.

본사기자 오은별

이유 !

그렇게 떠난 그가 처음으로 영어로 영어사진을 보내왔을 때 네명원들이 얼마나 기뻐했던가.

그뿐이 아니었다. 어느날 구역네명원군인 페창동봉우리는 유영동봉우리를 찾아와 이에게 말했다.

『오늘 네명원들에게 알아보니 한 돌격대원의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신령으로 자리를 누워있다고 합니다.』

청년이 혹시 경직정

한 대 오에 선 심정으로

보건성 중앙의약품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과 한대 오에

제 돌격대원들의 영웅전설을

제 돌격대원들에게 보내주었다.

판리소의 종업원인 김성남

봉우리는 비단 가정을 둘녀성의 틈이 있었지만 헌대원들의 한

성정에 뛰어난 헌대원으로

돌격대원들의 청년들이

돌격대원들이 헌대원으로

## 자주통일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신 불멸의 업적

역사적인 7·4 공동성명이 발표된 때로부터 4년이 되었다. 수십년 동안 격려되었던 북남관계에 첫 평화구를 끊고 조국통일의 회망과 학관을 봉둔 아픈 그 사법을 풀어놓은 것은 세계의 가슴을 숨기고 민족을 위한 통일의지, 비탄의 어제와 학관으로 민족 통동의 자주통일 강령을 마련해 주고 그 실현을 위한 전민족적 힘을 현명하게 이끌어온 선진 대신 수령님에 대한 사랑 치는 그려움으로 끝난다.

경애하는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절세의 국자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일성同志와 김정일同志의 현명한 정도에 의하여 조국통일원임은 안락의 분분주의 세력의 행동이 악랄하게 간행되는 복잡한 속에서도 대화와 세기를 이어 민족자주의 궤도를 따라 전진해온 수 있었으며 조국통일의 자체적 특성을 발휘할 세력을 암호화로 잡아낸다.』

1970년대 초기 폐쇄통치체들의 반동 학관들은 극히 악랄했지만 남조선인민들의 반자조민주화투쟁이 고조되는 속에 나파안장의 정령은 조국통일원임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정세 주이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60(1971)년 8월 남조선의 어탕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 사람과 아울러나 접촉한 용의가 있다는 폭넓은 협상방안을 제시해 주시였다. 이에 따라 남조선에서 청렴하신 주동적이 대법한 협상방안에 따라 주체 61(1972)년 5월 정양에서는 민족분류사상 처음으로 북남고위급 정치체험이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파안장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북남고위급 정치체험에 참가하기 위하여 정양에 온 남조선 대표 류성우를 만나주시었다.

7·4 공동성명을 받아온 남조선 각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활동하여 어빨라 를 몰라하는 그에 저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넘겨주어야 한다고 드립니다. 교시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는 통일문제해결의 기초로 절수 있는 근본원칙을 놓고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라고, 쌍방이 합의하여 세

군본원칙이 있어야 봄과 날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으며 나라를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봄나갈수 있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오늘 기간 무르익혀오신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에 대해 하나하나 가르쳐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정착적 방법으로 해결하여 한다는 더없이 정당한 통일방략이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 통일원칙은 이렇게 제시되었다.

남조선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한 자세로 조국통일 3대원칙에 청진인 등의 표시하면서 그것을 통일의 큰 기둥으로 삼겠다고 다짐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번에 봄과 남사

에 합의된 조국통일 3대원칙은 조선민족족이 공동으로 실현하여야 할

통일강령으로 되는 것인 조국통일 3대원칙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험난한 행보에 따라나오는 그들이 조국과 민족앞에 얹으신 불의의 풍작이다.

오늘 조국통일 위업의 전두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훗생의 끊임 없는 유훈을 펼쳐놓아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을 기하여 이룩하려는 확고한 핵심과 의지를 지니신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세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험난한 행보에 의해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원임은 새로운 역사적분수령에 올라섰다.

조성설과 함께 시대潮流의 요구에 맞게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두정을 향해 이끌어주고 계시는 조선로동당 7차대회 명도가 있기에 주체 61(1972)년 7월 4일 봄과 남은 자주, 평화통일, 조국통일 3대원칙을 그동안 노력해온 조국통일원임은 새롭게 역사적분수령에 올라섰다.

정체 7·4 공동성명의 첫째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바자 신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민족애, 불멸의

로고와 혼신의 빛나는 결실이었다.

7·4 공동성명을 받아온 남조선 각계는

제례의 의사와 요구가 접대성되어 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상황들이 회복된 조국통일 3대원장을 일관하게 험난한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갈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내외에 엄숙히 전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민족자주의 가치, 민족대단결의 가치를 높이 들고나가며 조선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런탁제랑식의 유통을 통하여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두정파업으로 제시하신 것은 삼천리 강도우에 존엄높고 벙울하는 통일강국을 일마세우기 위한 우리 당의 두정에서 새로운 전환적계기를 엿어놓은 역사적시변으로 된다.

오늘 조국통일운동의 전진을 달가와하지 않는 미국과 남조선통치체는 북남대통제개선과 자주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압박하게 도전하면서

반공화국제에 참가한 미국과 규탄의

비판을 드러낸 것이다.

지금 남조선은 물론 뿐만 아니라 북남대

화를 공연히 부정하며 도리어 반공화국제제

강장을 떠들어놓았던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역도의 나라는 자신에 적힌 『대북정책』을 한

사고를 유지하고 우리와 함께 일어나려는 흥미

한 속심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명색이 통일부 장관이라는 차가 북남대

화를 공연히 부정하며 도리어 반공화국제제

강장을 떠들어놓았던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오늘 조국통일운동의 전진을 달가와하지 않는 미국과 남조선통치체는 북남대

화를 공연히 부정하며 도리어 반공화국제제

강장을 떠들어놓았던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알기로 차가 주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규탄의 문제에 대해서는